



# 보도자료



(주소) 12700 /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812 (전화) 031-732-1682 (팩스) 031-732-0131

배포일	2025. 12. 23.	쪽수	사진	기관 누리집	자료 문의
보도일	2025. 12. 24.				
남한산성역사문화관-수원화성 박물관,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곽의 연구·보존·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		2	5	gjicp.ggcf.kr	부 서: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남한산성역사문화관팀 사업담당: 김엘리(031-732-1682) 홍보담당: 백주희(031-732-1691)

## 남한산성역사문화관-수원화성박물관,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곽의 연구 · 보존 ·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**국내 최초 ‘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반 박물관 협력 모델’ 구축, 경기도의 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잇다**

- 일 시 : 2025년 12월 23일(화) 오후 2시
- 장 소 : 남한산성역사문화관 1층 강당
- 참여자 : 수원화성박물관 박찬우 관장, 수원화성박물관 이민식 학예팀장,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이종희 팀장 등 관계자 총 10명 참여

남한산성역사문화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은 2025년 12월 23일(화), 남한산성역사문화관에서 세계유산 성곽의 연구·보존·활용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보유한 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과 수원화성의 가치를 연계·확산하고, 성곽 유산을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·전시·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남한산성역사문화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▲학술회의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▲전시 및 소장품 연구·보존·관리 분야의 교류 협력 ▲소장 유물 및 기록 자료의 공동 연구와 상호 활용 ▲탐방형·체험형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.

특히 남한산성이 보여주는 항전과 방어의 성곽, 수원화성이 담고 있는 계획도시와 개

혁의 성곽이라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기반으로, 한국 성곽 문화의 입체적 서사를 공동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.

양 기관은 협약에 앞서 2025년 11월 26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, 학술·전시·교육·소장품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 이날 협의에는 수원화성박물관 박찬우 관장과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이종희 팀장을 비롯한 양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, 실질적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.

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최초의 ‘세계유산 기반 박물관 협력 모델’을 구축하고, 향후 타 세계유산 관련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.

남한산성역사문화관 관계자는 “이번 협약은 세계유산을 ‘개별 유산’이 아닌 ‘연결된 문화유산’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도”라며, “도민과 국민에게 더 깊이 있는 역사·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 수원화성박물관 관계자 또한 “정조대 화성과 조선 후기 국방체제의 핵심인 남한산성이 만나, 한국 성곽 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※ 붙임 1. 업무협약식 대표 사진 5장



**붙임 1**

**업무협약식 대표 이미지 3장**

▲ 업무협약식 1

▲ 업무협약식 2

▲ 업무협약식 3